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임원진 워크숍



3월 3일~4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자원봉사자 임원진 워크숍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팀장 라정란 수녀와 자원봉사자 팀장, 부팀장 등 요일별 조장 7명이 참석하여 2017년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및 연간 사업을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 8개 CMC 호스피스 기관 소진 관리 프로그램



5월 10일, 26일 8개 CMC 호스피스 기관 직원들이 서울 성곽 둘레길을 다녀왔다.

이번 모임은 호스피스 업무를 하고 있는 CMC 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화마을 탐방, 성곽길 걷기, 호스피스 기관 직원들과 함께 하는 그룹별 사진 찍기 미션 등을 통해 기관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CMC 호스피스 기관 모임은 서울성모, 국제성모, 대전성모, 부천성모, 성바오로, 성빈센트, 여의도성모, 인천성모병원이 참석하였다.

▶ 상반기 사별가족 모임

5월 18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및 가정에서 임종한 사별가족을 초대하여 사별가족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모임에 총 36명의 사별가족이 참석하였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 등 비슷한 아픔을 겪는 유형별로 그룹 지어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참여 가족들은 감

정카드, 고인에게 편지 쓰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별 여정의 슬픔을 이야기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성가톨릭병원

▶ 세계병자의 날 이벤트

2월 9일 2017년 세계 병자의 날(2.11)을 맞아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입원 환우를 위해서 병실을 찾아 기도와 가족과 함께 사진 촬영 및 작은 기념선물을 드렸다.



▶ 전남광주지역 완화의료도우미 교육 시행

3월 17일, 21~22일



▶ 제17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우수봉사자상 수상

4월 26일. 우수봉사자시상으로 본원에서는 박선희 리더자매님이 수상을 했다.



▶ 사별가족 야유회

5월 30일 계절은 봄이나 날씨는 여름 같았지만 마음은 사별의 위축감을 떨쳐버리고 유쾌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광양 백운산 휴양림에 도착해서 간식 나눔->산책(황토길)-점심, 후식->산길 걸으며 나눔->희망 풍선 편지 쓰고 날리기를 하는데 풍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곳으로 유유히 걸어가듯 가는 풍선을 보고



폭소가 터지면서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고 내려왔다. 매번 이곳에 오는 것이 좋다며 3년째 개근하시는 어르신은 자연도 좋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더욱 좋다고 표현하셨다.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서로 축복을 하며 마무리를 했다.

대구대학교 가정호스피스

2월부터 개인 호스피스완화의료의원에 3명의 봉사자가 방문하여 발마사지, 침상목욕 등 신체 돌봄과 좋은 글 읽어드리기 등을 통해 화해와 거룩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다.

제17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에 이기옥 봉사자가 우수봉사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후원자와 봉사자를 위한 신년미사



1월 13일 본 센터에서 환우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함께 1부는 의정부교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의 집전으로 지난 한 해의 감사와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신년 미사를 봉헌하

1월 13일 본 센터에서 환우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함께 1부는 의정부교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의 집전으로 지난 한 해의 감사와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신년 미사를 봉헌하

였다. 2부에서는 2016년 활동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오신 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제9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4월 25일~27일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 후원,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주최로 선승성당에서 제9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였다. 지역사회의 호스피스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의정부교구 내 성당을 중심으로 7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평가하였다.

▶ 개원 1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



5월 13일 아름다운 꽃들과 신록이 어우러진 5월에 센터 프락에서 환우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비록 비는 내렸지만, 끝까지 성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의미 있는 음악회였다.

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병원

▶ 청량리역 설맞이 홍보활동

1월 26일 설을 맞이하여 청량리역사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확대 및 입원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 도움을 드렸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1권역 모임

2월 3일 호스피스의 서비스 질 관리와 팀원 소진 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 9개 기관이 모여 정보

를 공유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나눔의 자리를 가졌다.

▶ 소원성취 “심청이(心淸台) 여기 있어요 (간절한 이의 바람)

환자와 가족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시행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3월 22



일 환자분의 첫째 따님의 관면혼배를 진행하였고 환자는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시며 하객들과 마음껏 기쁨을 나누셨다. 5월 17일 집에서 1시간만이라도 머물고 싶다는 환자분을 구급 차량으로 모시고 다녀왔으며, 환자와 가족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과 기억이 되었다며 좋아하셨다.

▶ 2017년 1차 사별가족 모임

4월 5일 고인을 기억하고 사별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추모미사와 마음 나누기, 미술요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위안과 격려, 지지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부활 맛이 작은 음악회

4월 17일 부활 맛이 작은 음악회는 투병중인 환자와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는 첼로연주자의 정성 가득한 공연이었다. 일반병동 환자들도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기쁨이 배가 되었다.



▶ 야외나들이

4월 19일 환자와 가족들을 모시고 영취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나들이 후 함께 하지 못한 병동 가족들까지 모두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여운을 함께 하였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가족사진 촬영을 해드렸다.

▶ 2017년 제21회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5월 18~19일 “호스피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가 모두 호스피스를 경험하며 살고 있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평가를 해주셨다. 교육에 참석한 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호스피스를 알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국제성모병원



▶ 사별가족 모임

3월 24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별가족을 초대



하여 사별가족 모임을 개최하였다. 총 17명의 사별가족이 참여하여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하여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마음속 감정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서로를 공감하고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인이 생각날 때, 힘이 들 때 기도를 하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등불을 만들어 이별 후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위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호스피스팀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정성껏 준비한 점심으로 위로와 새로운 삶을 품고 가는 시간이 되었다.

▶ 제3차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5월 30~31일 2일 동안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여 총 32명이 수료하였다. 또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및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보수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80여 명이 교육을 들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개요와 실제, 통증 관리, 사별가족 돌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다.

▶▶ 생신, 파티 및 마음 전하기 이벤트

5월 2일, 27일 5월 생신이신 환자를 위해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하여 가족들과 병동 간호사와 함께 생일 파티를 진행했다. 환자의 자녀들이 감사패를 준비하여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음 전하기”는 그동안 전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에 대해 감사장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군대 간 아들이 특별휴가를 받아 평소 하지 못한 말을 마음 전하기의 일환인 감사장 전달을 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 Food Therapy

3월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 진행으로 샌드위치, 분식, 잔치국수 등을 준비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다. 환자 보호자는 “병원에 있으면서 잘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매일 같은 것만 먹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과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하며 환자, 보호자, 호스피스팀 모두가 사랑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년미사를 통해 화합을 다짐하고 덕담을 나누며 환자 보호자에게 좋은 동반자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환자, 보호자들의 생신파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생일을 맞이한 환자와 함께 잔치를 진행하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겪는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환자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데 있다.



▶▶ 입원 환자, 보호자 정서적 지지 이벤트

봉사자들이 준비한 특별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드렸고, 24시간 병간호를 하시는 보호자들의 환기를 위해 외부에서 점심 대접을 통해 같은 병실을 사용하며 서로 지지체계가 되어준 보호자들끼리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

▶▶ 에클레시아 작은 음악회

2월 28일 음악 봉사를 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셔서 환자 보호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함으로 병원에서의 똑같은 일상을 환기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북천성모병원

▶▶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신년미사

1월 3일 4층 성당에서 호스피스팀원들과 함께 신

여의도성모병원

▶▶ 1분기 사별가족 모임

3월 21일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별한 가족

들을 대상으로 사별가족 모임을 하였다. 8가족이 참석하였고 인형 테라피를 통해 서로의 슬픔을 표현, 미사를 통해 신앙 안에서 위안을 받았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적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 동요, 가요, 성가곡을 들시면서 기쁨을 나누셨다. 하모니 연주자들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처음 연주하신다며 다음에도 꼭 불러달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 외부교육 참석

3월 26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실시한 교육에 봉사자 14명이 참석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견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사별가족 모임

3월 22일 오후 2시 해바라기병동에서 사별가족 모임을 하였다. 한 가족만 오셨는데 원예치료를 통하여 어머니의 자화상을 마른 꽃으로 마음껏 아름답게 꾸며드리며 어머니를 이젠 하느님께 떠나보내 드려야겠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 팀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마음을 잃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 제17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

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4월 26일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에 봉사자 28명이 참석하여 ‘로고 테라피’라는 주제의 김미라 박사 강의를 청강하였고, 헌신적인 봉사의 모범이 되시는 분에게 드리는 모범상을 이영희 봉사자가 수상하였다.



▶ 한호완협 전북지회 춘계 심포지엄

3월 23일 전북대에서 열린 춘계 심포지엄에서 익산성모병원이 노인병원으로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실재”에 대한 발표를 박상훈 과장이 해주었다. 7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자원봉사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 (야유회)

5월 16일 자원봉사자 소진 예방으로 센터장 안중배 신부님, 최진욱 신부님, 주상연 교수님과 호스피스팀원 30여 명이 파주 전진성당과 헤이리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맑은 자연의 기운을 느끼며 서로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 익산성모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5월 14일, 21일 해바라기병동 팀원이 두 팀으로 나누어 익산시 부송, 어양, 송학, 함열 성당으로 나가 홍보를 하였다. 본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식 미사 전, 후로 자체 제작한 팸플렛과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며 1:1의 전략으로 호스피스 홍보에 나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익산성모병원

▶ 미니음악회

2월 27일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통기타 동아리 “하모니”의 작은 연주회가 있었다. 병실에서 나

인천성모병원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2월 22일~23일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 및 원내 직원 90명의 수강생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을 이수한 86명의 수강생 중 12명의 신규봉사자들이 호스피스완화병동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 사별가족모임

2017년 2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사별가족모임(희망가족모임)을 가졌다. 추모 미사와 안부 묻기, 음악요법, 오키나 공연, 고인 및 가족들, 혹은 나 자신에게 편지쓰기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큰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받는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4월 19일~6월 29일 제1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을 본원 신관에서 매주 목요일 17:30~22:10 11주 과정으로 46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신청하였다.

▶ 호스피스완화병동 봄나들이



4월 20일 호스피스완화병동 및 가정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을 모시고 인천나비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9가족이 나들이에 참여하였으며, 산책, 가족사진, 음악요법, 다과, 장기자랑(상

품 증정) 등 시간을 보냈다.

▶ 가정호스피스 주거 리모델링



5월 13일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증상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호스피스 대상자의 집을 인천성모병원 시설팀의 지원(자원봉사)을 받아 도배 및 각종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 주거 환경 개선 후 환자는 가정으로 퇴원하여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다.

▶ 통증캠페인

5월 29일 본원 신관 1층 로비에서 내원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OX퀴즈, 호스피스상담, 통증 및 각종 리플릿, 홍보물(부채) 배포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졌다.

중앙보훈병원

▶ 봄 소풍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위안뿐만 아니라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옥상정원에서 "환자·가족·완화의료팀과 함께하는 추억 나들이"로 오키나, 색소폰 연주, 뷔페 식사, 케리커처와 아로마 테라피 등 여러 부분의 재능기부자들의 도움으로 봄 소풍을 실시하였다.



▶ 사별가족 모임

사별가족의 일환으로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였다. 국가유공자가 대부분인 사별가족들은 현충원을 방문하여 먼저 가신 고인을 기리며, 현충탑 참배를 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한 상반기 사별가족 관리를 시행하였다.

▶▶ 자원봉사자 교육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의 이탈 방지와 기존 봉사자의 활성화, 새로운 봉사자 모집을 위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제2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
5월 20일~6월 24일 (토 09:00~18:00) 완화의료 전문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교육생 40명)을 운영 중이다.

창원파티시병원



▶▶ 소진 관리교육

1월 20일 은혜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좋은 벗 상담센터 김홍숙 원장의 현실이론과 실제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와 부서원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토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주인은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 부서 야유회

4월 22일 팀원들이 함께 명례성지와 주남저수지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명례성지는 밀양에 위치한 곳으로 담당 신부님의 성지 유래에 대한 설명과 낙동강이 보이는 곳으로 경관도 아름다운 곳이었다. 봄기운에 기분도 좋았고, 즐거운 대화의 시간에 많이 웃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 바자회

4월 27일 간호부의 주관으로 본원 5층 강당에서 “1004와 함께 하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판매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네팔 바와니 학교 지원금, 호스피스 후원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는 행복한 하루였다.



▶▶ 통증 캠페인

5월 17일 원내 1층 로비에서 암 극복캠페인 ‘통증을 말합시다’라는 주제로 통증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통증 관련 리플릿 제공, 통증 O,X 퀴즈, 홍보 물품도 제공해 드렸다. 이번 행사에 4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천주의 성모한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피정

3월 21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담양 대건센터에서 일일 피정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석하여 봉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적인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호스피스 활동에 임하기로 다짐하였으며, 더불어 모두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별가족 모임

4월 26일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는 전례”라는 주제로 사별가족 모임이 진행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 **통증 캠페인 원내 실시**

5월 17일 본원 1층 로비에서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통증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리플렛 제공, o x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바로 알기 및 암성 통증 조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원 20주년 기념 및**



추모미사

5월 19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사별가족들을 모시고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미사를 하였다. 위패 봉헌, 자원봉사자의 추모곡, 유가족의 추모사 낭송과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며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바라고 남겨진 가족의 그리움과 슬픔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중교육**

대학생(1월 19일)과 일반인(4월 18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하였다. 총 32명의 참석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2017년도 기관대표자 회의 개최**

2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기관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회 산하기관대표, 이사 등 26명이 참석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제10회(총2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1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2016년도 사업·회계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협회에서 현재 발급되고 있는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수료증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 **제17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및 심화교육 개최**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4월 26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고문위원, 협회이사, 전국의 자원봉사자 등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미라 박사의 삶의 의미와 호스피스라는 주제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기념행사에서 기관공로상(성바로병원), 우수봉사자상(대구대교구-이기옥, 부산성모병원-김영희, 서울성모병원-서은경, 성가롤로병원-박선희, 성바로병원-임미선, 성빈센트병원-이남순, 여의도성모병원-이영희)을 수여하였다. 기념행사 후 장광재 신부님이 집전하신 미사 전례가 있었다.

▶ **제1,2회 이사회 개최**

1월 18일 제1회 이사회, 4월 26일 제2회 이사회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하였다. 1회 이사회에서 2016년 결산서와 2017년 예산서를 보고하고, 2회 이사회에서는 2017년 세미나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